

성도의 밭 6
1981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 스펜서 더블류킹볼
- 엔 엘론 태너
- 매리온 지 톨니
- 십이사도 평의회
- 에즈라 태프트 벤슨
- 마크 이 피터슨
- 리그랜드 리차즈
- 하워드 더블류 헌터
- 고든 비 힐클리
- 토마스 에스 몬슨
- 보이드 케이 패커
- 마빈 제이 매쉬틀
- 브르스 알 맥콩키
- 엘름 페리
- 데이비드 비 헤이트
- 제임스 이 파우스트

고문

- 벨 엠 러셀 벨라드 이세
- 로렌 시던
- 렉스 디 피네가
- 찰스 에이 디데이
- 조지 피리
- 에프 엔지오 부쉬

차 례

예언자를 따르는
14개의 기본 원리.....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 1

아버지가 집에 오시기를
기도해 준 동생.....던 피 스미스..... 9

어느 나이지리아 회원의 이야기.....안토니 우조덤마 오비나.....10

“우리 아이의 선생님을
축복해 주옵소서”.....클래디스 시 콰머.....14

역경에 처했을 때 해야 할 일.....스티브 던 핸슨.....18

초원의 뇌우.....다이언 새더럽.....21

아빠와 함께 사는 집.....에그니스 캠프튼.....24

교통 도시.....바바라 혼그랜.....27

복음을 함께 나누는
손쉬운 방법.....디 브이 제이킵스.....29

감독님과 아버지와 보트.....데이비드 햄몬드.....32

언덕위의 햇불.....빅터 엘 브라운 관리 감독.....37

해의 왕국의 선교사.....존 자비스.....40

지역 지도자 메시지.....한 인상 지역 대표.....44

해외 소식.....45

지역 소식.....46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장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의도/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권 : 제191호 제17권 제6호
등록 : 1967년 10월 4일, 리-932
발행일 : 1981년 6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틸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건수

© 1981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예언자를 따르는 14개의 기본 원리



에즈라 태프트 벤슨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모이신 학생들은 선택된 젊은 세대, 곧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게 될 세대입니다.

오늘날 중요한 것은 교회가 숫자상으로만 증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가 기성 세대보다 더욱 신앙심이 깊다는 것이 보다 중요한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제11시, 곧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을 위해 여러분을 예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왕국을 승리로 이끌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영혼과 가족을 구원하고, 영감받은 국법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에 놓인 큰 시험을 이겨 나가도록,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 중요한 열쇠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대로만 따라 행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될 것이며,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안있어 우리는 예언자의 85회 생신을 경축하게 됩니다. 교회 회원인 우리는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찬송가 59장)을 부릅니다. 중요한 열쇠가 여기 있으니 그것은 곧 예언자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이신 예언자를 따르는 14개의 원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 예언자는 모든 면에서, 주님을 대신하여 말씀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교리와 성약 132편 7절에서 주님은 예언자, 곧 대관장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권의 권능과 열쇠를 부여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일대에 단 한 사람 뿐이니라.”

그리고 21편 4-6절에서는,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구성하는 너희는 요셉이 받는 대로 너희에게 주게 될 말씀과 계명을 모두 마음에 새겨 두며 내 앞에서 온전히 기록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인내와 신앙으로 저의 말을 내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로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지옥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 살아 있는 예언자는 우리에게 표준 경전보다 더 중요합니다.

윌포드 우드럽 대판장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 시대에 있었던 재미있는 사건에 관해 말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초창기에 커틀랜드에서 열린 어떤 모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모임에서도, 살아 있는 예언자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오늘 여기서 있었던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와 같이 광범위하지는 않았으나, 같은 원리가 논의되었으며, 한 지도자가 나서더니 그 문제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 물몬경, 교리와 성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계시를 주는 사람은 이러한 책에 따라 계시를 주어야 합니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범위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요셉 형제는 브리감 영 형제에게 몸을 돌리고 말했습니다. ‘브리감 형제님이 단에 올라가 살아 있는 예언자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관한 형제님의 견해를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자 브리감 형제는 단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집어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물몬경을 집어 들었다가 내려 놓았습니다. 교리와 성약도 집어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 스미스



브리감 영

‘이 경전들에는 태초로부터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하나님의 사업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살아 있는 예언자와 비교해 볼 때 그 책들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예언자나 성신권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만큼, 그 책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직접 전해 주지는 못합니다. 나도 그러한 책에 기록된 모든 것보다는 살아 있는 예언자를 더 신임하겠습니다.’ 그는 사실 그대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요셉 형제가 회중들에게 말했습니다. ‘브리감 형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씀했습니다.’ (대회 보고, 1897년 10월, 18-19페이지)

셋째 : 살아 있는 예언자는 세상을 떠난 예언자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담에게 주시는 계시에서 노아에게 방주짓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노아는 그 자신의 계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우리 시대에 살아 계시는 단 한 분의 예언자로, 주님은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의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매달 교회 잡지에 실리는 예언자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1년에 두 번씩 발간되는 대회 특별



존 테일러



윌포드 우드럽.

호의 연차 대회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살아 있는 예언자를 폐하고 이미 세상을 떠난 예언자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아 있는 예언자는 항상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 예언자는 결코 교회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드리노니, 주님은 나나 교회의 대관장이 되는 다른 어느 사람에게도 여러분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윌포드 우드럽 설교집, 212-13페이지)

메리온 지 롭니 부대관장은 그가 겪었던 일을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수십년 전 내가 감독으로 있을 때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이 우리를 방문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집회가 끝난 뒤에 나는 대관장님을 댁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분은 내 어깨에 팔을 얹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네는 항상 교회의 대관장에게서 시선을 빼지 않고 있네. 대관장이 자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한다면, 설사 그것이 그릇된 일이라도, 자네는 그대로 할걸세. 주께서 자네를 꼭 축복해 주실 걸세.’ 그런 다

음 그는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네는 걱정할 필요가 없네. 주님은 결코 그의 대변자에게 그의 백성을 잘못 인도하게 하지 않으신다네.’”(대회 보고, 1960년 10월, 78 페이지)

다섯째 : 예언자는 어느 때, 어떤 주제에 대하여 말하거나, 어떤 행위를 위해 특정한 지상의 훈련을 받거나 신용장을 지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어떤 주제에 대한 그들의 지식이 같은 주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식보다 우월하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예언자가 그들과 같은 지상의 학위나 교육을 받아야만 그들이 지상의 학문과 모순될 수도 있는 예언자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 스미스는 지상의 교육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모든 문제에 대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예언자 중에는 어떤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지상의 지식을 갖추기를 권고합니다만, 지상의 지식과 예언자의 말씀 사이에 대립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예언자의 편에 선다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 예언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고 부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말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언자께서 어떤 충고의 말씀을 한다 해도 그것이 계명이라고 밝히지 않는 한 그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언자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요셉이 받는 대로 너희에게 주게 될 말씀과 계명을 모두 마음에 새겨 두며 내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생활하라.” (교성 21 : 4)

예언자에게서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에 관하여 주님은 교리와 성약 108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주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의 종 라이만아, 네 죄는 사함받았느니라. 이는 네가 나의 음성에 순종하여 오늘 아침 이곳에 올라와서 내가 임명한 자의 조언을 들으려 하였음이니라.”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인류에게 전한 설교로 그들이 경천이라 부를 수 없는 설교를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설교집 13 : 95)

일곱째 : 예언자는 항상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니파이의 형제들은 “너는 우리가 감당할 수조차 없는 심한 말을 하였도다.”하고 불평했습니다. 니파이는 “이 이야기는 죄 있는 자들의 마음 한복판을 찌를지니, 이 진리를 심하다 이룰지니라.”(니일 16 : 1, 2)는 말로 대답했습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지도자가 들려주시는 말씀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정치적 견해와 어긋날 수도 있으며 또한 여러분의 사회적 견해와 모순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사회 생활을 해 나가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과 우리의 안전은 그분의 말씀에 따르



조셉 에프 스미스



로렌조 스노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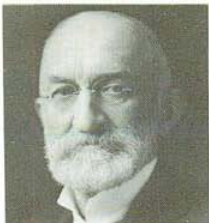
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교회의 대관장을 항상 따르도록 합시다.” (대회 보고, 1970년 10월, 152-53페이지)

그러나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살아 있는 예언자입니다. 김볼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에서조차 과거 예언자들의 무덤은 미화시키고, 살아 있는 예언자를 배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인스트락터, 95 : 257)

왜 그럴까요? 살아 있는 예언자는 우리가 현재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계시받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과거에 세상을 떠난 예언자를 더 좋아하고, 예언자가 그들의 문제에만 골몰하기를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뛰어난 정치학자들도 예언자가 정치 문제에 관여해 주기를 원합니다. 자칭 진화론의 권위자라는 사람들 중에도 예언자가 진화론에 대해 말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수없이 열거할 수 있습니다.

살아 있는 예언자께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것이 되며, 아예 듣지도 않으려는 태도도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예언자를 믿는 것은 쉬운 일이나, 살아 있는 예언자를 믿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조지 앨버트 스미스

그런 다음 그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이야기하셨습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이 살아 계시던 어느 날, 나는 대회를 마친 뒤에 길 건너편에 있는 나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중년을 넘어선 한 형제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나를 포함한 몇몇 형제들이 그날 대회에서 한 이야기에 매우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그가 외국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진정시킨 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님은 어떻게 해서 미국으로 오시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자께서 이곳으로 오라고 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 예언자가 누구였지요?’ 라고 나는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이었습니다.’ ‘형제님은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이 하나님의 예언자였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예.’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도 하나님의 예언자였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대답을 듣고 나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님은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을 하나님의 예언자로 믿고 있습니까?’ 그는 이 질문에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은 노인 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

구든지 자기 생각에만 치우쳐 있으면 배도의 길을 걷게 되며,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 예언자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됩니다.” (대회 보고, 1953년 4월, 125페이지)

여덟째 : 예언자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 없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를 택하느냐, 학자를 택하느냐,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이성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날 때까지,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원인을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옳은 것이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50페이지)

침을 빨아 진흙을 이겨 그것을 소경의 눈에 바른 다음에 오염된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하여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을 안과 의사에게 말해 준다면 그가 믿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분명히 예수는 한 소경에게 이와 같이 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9:6-7 참조) 어떤 사람이 나병 환자에게 특정한 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고 말하여 그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겠지만, 예언자 엘리사는 한 문둥 병자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하여, 그가 병 고침을 믿게 한 것은 분명히 있었던 일입니다. (열왕기하 5장 참조)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이사야 55 : 8, 9)

아홉째 : 예언자는 어떠한 면에서든,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에서 모두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브리감 영 대판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커틀랜드에서 몇몇 지도자들은 현실적인 어떤 문제로 인하여 예언자 요셉에게 크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성도들이 모인 공적인 모임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 중에서, 하나님 왕국의 영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 사이를 구분짓는 선을 그어, 내가 분명히 알 수 있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지상의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예언자가 걸어야 할 길, 곧 그의 의무를 지적해 내고, 현실적 및 영적인 면에서 그가 얼마나 깊이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적해 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 및 영적인 일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것은 영원히 그러할 것입니다.”(설교집, 10 : 363-64)

열째 : 예언자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훌륭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백성은 가장 훌륭한 사람이 정치적인 면에서도 그들을 이끌어 주기를 원합니다. 엘마는 물몬경 시대에 교회와 행정부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나부의 지장이었으며, 브리감 영은 유타주의 주지사였습니다. 이사야는 정치적인 문제에 깊이 관여하여 충고해 주었으며, 주님은 직접 “이사야가 전한 말씀이 위대함이라.”(니삼 23 : 1)고 말



데이비드 오 맥케이



조셉 필딩 스미스

씀했습니다.

열 한번째 : 예언자를 따르는 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두 무리는 학식을 자랑하는 자들과 부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학식이 있는 자들은 예언의 말씀이 그들의 의견과 일치될 때에만 영감을 받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예언자는 인간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예언자의 충고 따위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몬경에는 이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 악마의 간교한 꾀여, 오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나약함과 헛됨이여, 저들이 학식을 얻으며 스스로 현명하다 생각하여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아니하고 옆으로 밀어 내며, 저들이 스스로 아는 듯이 여기나니, 저들의 지혜가 어리석도다. 저들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니 저들은 필경 멸망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고를 따를진대, 학식을 얻음이 유익할 것이나,

“누구든지 주께 두드리면 열어 주실 것이로되, 지혜롭고 학식이 있으며 부한 자들이 저희의 지혜와 학식과 재물로 인하여 교만할진대, 주께서 저들을 부인하실 것이요, 저들이 가진 바를 던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 깊이 겸손하여지지 않을진대, 주께서는 결코 저들에게 열어 주지 아니하시며,” (니이 9 : 28, 29, 42)



해롤드 비리

스펜서 더블류 김볼

열두번째 : 예언자가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세속적으로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언자가 진리를 들어 내면 세상 사람들은 둘로 나뉘게 됩니다. 마음이 성실한 자는 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지만, 불의한 자는 예언자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를 거역하게 됩니다. 예언자가 세상의 죄를 지적하면,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다만 예언자가 입을 다물어 주기를 원하거나 아예 예언자가 존재하지 않는 듯이 행동합니다. 인기는 진리를 시험하는 시금석은 아닙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쫓김을 받았읍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와 오에 따라, 세상 사람들은 더욱 사악해지고, 예언자는 그들에게 더욱 인기가 없어질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열 세번째 : 예언자와 그의 보좌들이 교회에서 최고의 정원회인 대관장단을 이룹니다.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은 대관장단을 “최고의 평의회”(107 : 80)라 일컬으시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파송한 자…… 대관장단을 받아들이는 자니라.”(112 : 20)고 말씀하십니다.

열 네번째 : 예언자, 곧 살아 있는 예언자와 대관장단을 따르면 축복을 받고, 그들을 거역하면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해롤드 비리 대관장은 교회 역사에 나

오는, 다음 사건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초창기에, 특별히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있었던 이야기로 생각됩니다. 교회의 관리 평의회에서 지도급의 몇몇 형제들이 비밀 회의를 열고 예언자 요셉의 지도권을 박탈하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러한 비밀 회의에 브리감 영을 불러들이는 실수를 저질렀읍니다. 브리감 영은 그 모임의 목적을 안 후에, 다음과 같은 말로 심하게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당신네들이 하나님의 예언자를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는 없소. 다만 당신네들은 하나님의 예언자와 맺은 유대를 끊고, 스스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을 뿐이오.’”(대회 보고, 1963년 4월 81페이지)

교회의 한 연차 대회에서 엔 엘론 태너 부대관장은 이런 말씀을 한 일이 있습니다.

“예언자는 금요일 아침에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

“그 모임이 끝난 뒤에 어떤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이 옳다고 생각할 때는 예언자를 따르지만, 그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다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들 자신의 예언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합니다.

“나는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성약이나 계명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 참으로 문제는 심각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키거나 따르지 못할 계명이 있는가를 가려내서 주님의 율법을 마음

대로 취하여 스스로 예언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자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 거짓 예언자가 되므로, 그릇된 길로 인도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계명 중에서 어느 것은 지키고 어느 것은 지키지 않아야 하는가를 마음대로 분별해서는 안됩니다.” (대회 보고, 1966년, 98페이지)

“대관장단을 보고 그들로부터 지시를 받으십시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61페이지)하고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알몬 바비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교리와 성약 124편 8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종 알몬 바비트에 대하여는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이 많도다. 보라 저는 내가 명한 조언 곧 나의 교회의 대관장단의 조언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조언을 인정하여 주기를 갈망하나니, ……”

결론으로 이처럼 중요한 열쇠가 되는 “예언자를 따르는 14개의 원리”를 간단히 요약해 보기로 합시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그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1. 예언자는 모든 면에서 주님을 대신해서 말씀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2. 살아 있는 예언자는 우리에게 표준경전보다 더 중요합니다.
3. 살아 있는 예언자는 우리에게 세상을 떠난 예언자보다 더 중요합니다.
4. 예언자는 교회를 결코 그릇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5. 예언자는 어느 때, 어떤 주제에 대하여 말하거나, 어떤 행위를 위해 특정한 지상의 훈련을 받거나 신용장을 지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6. 예언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고 부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7. 예언자는 항상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8. 예언자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 읽매이지 않습니다.

9. 예언자는 어떠한 면에서든,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에서 모두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예언자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훌륭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11. 예언자를 따르는 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두 무리는 학식을 자랑하는 자들과 부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12. 예언자가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세속적으로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3. 예언자와 그의 보좌들이 교회에서 최고의 정권회인 대관장단을 이룹니다.

14. 예언자, 곧 살아 있는 예언자와 대관장단을 따르면 축복을 받고, 그들을 거역하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나는 살아 있는 예언자를 따르는 이상의 열 네 가지 원리가 참됨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편에 설 것인가를 알고자 하여 스스로 주께서 이 세상에 내세우신 지도자의 편에 서기를 구한다면, 우리의 삶은 대관장단과 더불어, 주께서 축복하신 분, 곧 살아 있는 예언자이신 교회의 대관장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앞에 놓인 웅대한 시기에 우리 모두가 예언자와 대관장단을 바라보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



아버지가 집에 오시기를 기도해 준 동생

틴 피 스미스

어느 토요일 오후, 아버지와 형이 나무를 모으기 위해 목장을 떠난 일이 있었다. 아버지는 여동생인 일레인과 나에게 목장을 잘 돌보라고 하시며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을 일러 주셨다.

아버지는 내게 저 아래 들판으로 내려가 젓소를 축사에 몰아 넣어,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곧 우유를 짤 수 있게 준비해 놓으라고 지시하셨다.

나는 말을 타고 젓소를 모아들여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말이 축사에 묶여 있지 않고 아래 들판에서 젓소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은 말이라고는 아버지가 내게 타지 말라고 한 크고 검은 말 한 마리뿐이었다. 그 아래 들판까지 도저히 걸어갈 엄두가 나지 않아 나는, “꼭 한 번만” 그 말을 타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 말에 안장을 얹

고, 올라탄 다음, 일레인도 내 뒤에 태우려 했다. 그러나 확실히 주님이 동생을 들봐 주셨다. 말은 동생이 올라타도록 앞전히 있지 않았다.

갔다 와서 태워 주겠다고 동생에게 약속한 다음, 나는 소를 몰아 넣기 위해 들판을 향해 달려갔다.

돌아오는 길에 그 말이 진초 저장용 철사줄에 발이 얽혀, 그 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바람에, 나는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나는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었으며, 그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은 내가 형의 침대에 앉아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깨진 들판을 지나고, 여러 개의 울타리를 넘어 기를 쓰고 집까지 걸어갔던 것이다. 얼굴 한쪽에는 깊은 상처가 나 피가 흘러내렸고, 왼쪽 손을 빼었으며 여기저기 긁히고 찢겨 상처 투성이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조금씩 인식하고 있을 때, 일레인이 울며 방으로 들어왔다. 내가 동생에게 어디 있었느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빠가 집으로 빨리 돌아오셔서 오빠를 병원에 데리고 가게 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아버지는 한창 나무를 자르고 계셨는데, 갑자기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느낌이 드셨다고 한다. 아버지는 하던 일을 멈추고 형에게 “집에 가자.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다.”라고 말씀했다. 아버지는 내가 의식을 차린 뒤에 곧 집에 도착하셨다.

나는 지금도 동생의 믿음과 겸허한 신앙의 태도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다.

*



어느 나이지리아 회원의 이야기

안토니 우조딤마 오비나

안토니 오비나의 편지에서 발췌한 이 글은, 서 아프리카의 교회에서 흑인으로서 처음으로 회원이 된 안토니 오비나 형제와 그의 아내 피멜리아 엔요키 오비나 자매의 이야기이다. 아프리카에 세워진 교회의 첫번째 흑인 지부에서 오비나 형제는 초대 지부장이 되었고 오비나 자매는 초대 상호부조회 회장이 되었다.

우조딤마는 부모님께서 지어 주신 이름입니다. 그 의미는 “최선의 길” 또는 “선하고 유익한 곳에서는 지도자가 눈에 띄지 않으나, 악하고 무익한 곳에서는 지도자가 저주받고 모든 비난을 받게 된

다.”는 뜻입니다.

나는 1928년에 나이지리아의 오웨리 아이모주의 지방 행정 구역인 아보 엠바이즈의 움무에렘 엔이요구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할아버지는 뵈지 못했고, 조부님들의 생활상을 이야기로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부친의 이름은 오비나 우고추쿠였습니다. 오비나란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자”란 뜻이었습니다. 우고추쿠는 아이보 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었습니다. 나의 조부모와 부모님은 모두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해마다 부모님은 염소, 양, 닭과 같은 가축이나 가족의 생계에 필요

한 농작물과 같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그들의 신에게 바쳤습니다. 아이보에서는 남자가 능력만 있다면 아내를 얼마든지 거느릴 수 있는 관습이 있었으므로, 나의 부친도 세 아내를 두었습니다.

나의 부친은 영향력이 있는 분으로, 화평케 하는 자, 진리를 사랑하는 자로 지방의 판사였으며, 악과 거짓은 조금도 용납치 않았습니니다. 부친은 농사일이나 장사일도 하였고 아주 겸손하셨습니다. 부친은 24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대부분이 어릴 때 죽었습니다. 현재 열한 명의 아들과 네 명의 딸이 살아 있으며, 많은 증손자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 지방 사람들은 서양 교육을 몹시 싫어하였으며, 누구든지 그들의 자녀를 학교나 교회에 보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백인을 두려워하였으며, 백인들 앞에 나서거나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이 집에서 농사나 짓기를 원했습니다. 가족 중에서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등만이 학교나 교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자들도 일을 하여 생계를 도와야 했으므로, 학교에 가기란 매우 힘들었습니다.

나는 행운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많은 행운을 주셨는지 나는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다섯째 아이로 태어났으며, 나의 부모님은 1937년에 나를 학교로 보냈습니다. 한 영국인 방문객이 나의 부친께 말을 걸었는데, 부친이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으므로, 나를 학교에 보내기로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1944년에, 내가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했을 때, 제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 우리는 많은 곤경을 겪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었으므로 나는 나이제리아 북부에 있는 조스로 가서 교사로 취직했습니다. 그때 내 나이는 17세였습니다. 그때 한 카톨릭 제사가 나에게 옥스포드 월시 홀에서 통신 교육 과정을 밟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나는 특히 영어, 지리, 경제학, 역사, 종교, 보건학 등에 관심을 가졌으며, 그 방면에 성적도 뛰어나았습니다.

1950년에 나는 사랑하는 아내 피렐리아 엔요키와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1930년, 아보 엠바이즈 지방 행정 지역에 있는 이베쿠 오쿠아토에서, 응코쿠 우고나보와 에케오마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내는 매우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었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고아가 되어 어린 동생들을 보살피 주어야 했던 아내는 생계를 위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행상을 했습니다. 아내는 천주교로 개종하여 여러 조직에서 지도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아내는 나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지지해 주셨으며, 악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혼 초에 거듭되는 실패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가호에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형편은 점점 어려워졌으므로, 나는 장사를 하게 되었고 아내는 경리를 맡았습니다. 아내는 정직했으며, 주위 사람들은 그러한 아내를 훌륭한 가정 주부와 다른 여인들의 본보기로 여기며 존중했습니다. 아내는 관심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인생사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건전한 충고를 들려

주는 의무를 조금도 소홀히 한 적이 없으며, 가족에 대한 책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1952년에 나는 다시 교단으로 돌아갔으며, 한편 학문을 계속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는 내가 4년제 사범대학을 마치기까지 참을성있게 기다려 주었습니다. 나에게는 교직이 천직인 듯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교육 사업 외에 따로 할 일을 마련해 두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1965년 11월에, 나는 꿈에서 오른손에 지팡이를 든 키 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나에게 존 번연의 천로역정에서 크리스찬과 크리스티아나에 대한 것을 읽어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읽어 보았지만 잊어버렸노라고 말하자, 그는 나에게 다시 읽어 보라고 말했습니다. 몇 달 뒤에 같은 사람이 다시 나에게 나타나 나를 매우 훌륭한 인물로 데리고 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같은 사람이 나에게 세 번 나타났습니다.

나이제리아 내란이 일어나, 우리가 집에 갇혀 있을 때, 나는 1958년 9월호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펴 보았습니다. 그 책의 34페이지를 펴 보니 꿈에서 본 아름다운 건물의 그림이 있었는데, 나는 곧 그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의 제목은 “물문의 행군”이었습니다. 나는 물문이라는 말은 한번도 들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건물의 사진은 꿈에서 본 것이었으므로 나는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모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관한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읽은 나는 조금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새로 발견한

것에 모든 관심이 쏠렸습니다. 나는 곧 뛰쳐 나가 형제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으며,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이제리아 전역이 봉쇄되었으므로, 나는 교회 본부에 편지를 낼 수 없었습니다. 1971년에 봉쇄가 해제되어 나는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복음의 회복에 관한 “요셉 스미스의 간증”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팜플렛과 소책자 및 물문경이 내게 우송되었습니다. 그때 선교사파를 담당하고 있던 러마 에즈 윌리엄스 형제는 당시 나이제리아에는 교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나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는 계속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여러 번 꿈속에서 교회 문제에 관해 토론하는 선교사들을 보았습니다.

나에게는 박해와 갖가지 모욕이 가해졌습니다. 나는 여러 모로 박해를 받았지만 못 들은 체했습니다. 진리를 발견한 나는 인간의 위협 따위로 나나 내 가족이 진리로부터 멀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문을 열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내가 보낸 편지에 더블류 그랜트 뱅거터 장로는 나이제리아에는 아직 교회가 조직될 수는 없으나,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가 조직되기를 바란다는 답장의 편지를 보내 주었습니다.

나는 1976년 10월 9일에 뱅거터 장로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9월 24일에 장로님이 보내 주신 편지를 감사히 받아 보았습니다. 장로님이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

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참된 것으로만 신앙을 계속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곳에도 교회가 설 수 있게 하시리라 믿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시험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는 이곳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자녀들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윌리엄스 장로는 우리에게 일요일에 해야 할 프로그램을 알려 주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했으며, 드디어 1978년 11월 21일에, 교회는 흑인에게도 의식을 수행할 수 있는 신권이 공식적으로 주어짐을 발표했습니다.

그날, 19명이 렌덜 엘 메이비 장로와 에드윈 큐 캐넌 이세, 에이 브르스쿠 누드슨 장로에 의해 침례받고 회원이 되었고, 아보 지부가 조직되었습니다. 안토니 오비나가 지부장이 되고, 그의 형제들인 프란시스와 레이몬드가 보좌가 되었으며, 그의 아내인 피델리아가 상호부조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오비나 지부장이 그의 가족 모두가 이러한 직분을 맡게 되어도 타당한가를 염려하자, 메이비 장로는 그들이 선택된 것은 그들이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지, 혈족 관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지부장단은 곧 대관장단에게 기쁨에 넘친 편지를 보내 그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총관리 역원에게”

“이곳 나이지리아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우리 백성들에게도 복음의 문호가 온전히 개방되게 되었음에 총관리 역원 여러분과 전세계의 말일성도들에게 심심한 감사

를 드립니다.

“우리는 대관장단 여러분이 우리를 이 우리에게 들게 하기 위하여 신전의 기도실에서 많은 시간을 주님께 기도해 주신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어, 계시로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약속의 날을 확인해 주셨으며, 우리에게 성신권을 허락해 주시어, 신성한 의식을 행사할 권능을 지니고 신전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교회가 날로 성장하여 강한 성도의 중심지가 되고, 현재 전세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나이지리아 백성들에게 널리 퍼져 나가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겸허하고 충실한 아내와 훌륭한 일꾼 자녀가 이 지상의 참된 교회의 회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의 자녀들은 모두 교육을 받았습니다. 첫째 딸과 첫째아들은 사범 학교 출신입니다. 보나드벤투레는 중학교 5학년까지 마쳤고, 안젤라라는 중학교 4학년, 스텔라 에고는 중학교 2학년, 아나스타시아는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막내아들은 1980년 9월에 초급 대학에 입학합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사랑하고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참된 교회를 보호하시며, 회원 수가 매일 증가해 가고 있으니, 장차 이 교회의 회원은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무수히 늘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은 어떠한 인간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

나는 초등학교에서 첫 공과를 마치고 충격을 받은 채 집으로 돌아왔다. 같은 경험을 한 다른 교사들의 얼굴에서도 낭패한 표정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이 유일한 위안이 되었다. 학생들이 방학을 마치고 온 후라서 잘 다루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두번째 주일도 역시 완전히 실패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한 번도 우리 반 아이들을 잘 다루지 못한 것 같은 느낌 들이었다. 내가 집에서 만든 시각 보조 자료도 아이들의 거친 손길에서 남아날 수가 없었다. 남자 아이들은 의자 위에 올라서는가 하면 창문 위로 기어오르고, 여자 아이들은 자기베끼리 아니면 남자 아이들과 다루기도 했다.

나는 처음 받은 충격을 가라앉혀야 했다. 아무리 재주가 신통한 사람이라도 여덟 살짜리 아이들을 11개월간 계속 가르치기란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자존심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다. 나는 성인이 된 뒤에는 주일학교, 상호부조회, 상향회, 신학 연구원 중등부, 대학 강의실 등에서 줄곧 가르쳐 왔으며, 가르치는 데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 감독은 내게 이 과제를 맡기면서 이렇게 말했다. “초등학교에서의 이 임무가 자매님에게 새로운 차원에서 성장과 발전의 길을 열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나치지 않는가! 이것은 이제까지 내가 맡은 과제 중에서 가장 작지만 힘든 것이었다.

나는 그 날밤 잠을 조금밖에 못 잤고, 다음날은 집의 아이들 때문에 화가 났다. 나는 결국 남편에게 걱정 거리를 털어놓았다. 남편은 차분히 이야기를 들어주더니 상당히 실제적인 면

“우리 아이 축복해”

클래



선생님을 속소서”

과머



에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다. 즉, 매주 학생들을 통해 보고 카드를 집으로 보내 문제되는 행위를 부모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역시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실수를 보인 만큼 교실의 분위기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나는 어느 정도 자포자기한 상태였지만, “가정 통신” 카드를 몇 장 작성하여, 아이들의 어머니에게 전달했으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새로 고안해 낸 이러한 제도도 한 달쯤 지나자 시들해졌으나, “조용히 하지 않으면……”하고 아이들을 대하면서 나는 공과를 발표하고, 간증을 전하고, 반의 전체 파티를 계획하며, 과부를 위한 봉사 사업을 행할 수 있었다. 그 반에서 전에는 몹시 장난이 심하던 한 소년이 옆에 있는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할 정도였다. “성가시게 굴지 마. 내가 좋은 가정 통신 카드를 가지고 가면 어머니가 과자를 주시거든.”

다른 때보다는 좀 나은 그런 주일이 계속되었으며, 처음 두 주일만큼 애를 먹이는 아이들은 없었다. 나는 늘 변화있게 하고자 했다. 게임도 하고, 시험도 벌이며, 영화도 보고, 교실에서 꼭꼭자시 이야기도 해주고, 방문도 하고, 학생들의 집에 개인적인 편지도 자주 띄웠는데, 그 모든 것이 도움이 되었다. 반년쯤 지나자 학생들은 나를 존경하게 되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내가 전반적인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될 일이 발생했다. 나는 매주 초등학교에서 맡은 일로 많은 시간을 빼앗겼으나,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

은 세 자녀에게 빼앗기는 시간도 많았다. 그들 역시 다루기는 힘들었으나, 기쁨과 보람을 안겨 주었다. 부끄러움을 잘 타고, 명랑하고, 열성적인 네 살 반 된 우리 사라가 유아반에서 즐겁게 노는 것을 보니 참으로 다행스러웠다. 내가 사라의 선생이 되어 딸 아이에게 더욱 큰 사랑과 관심을 보여 편하게 해줄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했다. 나는 두 살 반 된 제멋대로 구는 우리 클라크가 혼자 유년 주일학교에 참석하여(집회 순서가 조정되기 전이었음) 일요일 아침에는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돌이 지난 레이첼과 함께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했다.

어느 일요일, 남편이 신권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우리에게 새로 지명된 열성적인 가정 복음 교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나는 마음이 들떴다. 보우웬 형제는 벌써 언제 그들이 집에 올 것이며,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파제가 무엇이고, 자녀들에게 어떤 공과를 발표하기를 원하는지 물었다는 것이다. 감독이셨으니 그럴 만도 하지 하고 나는 생각했다. 가정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는 환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집의 아이들에게 우리 와드로 이사해 온 보우웬 형제의 이름을 암기시켰고 그는 우리 집에 와서 우리가 훌륭한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고 도와 주는 특별한 친구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흔히 있는 일이지만, 그 다음 주일에 공교롭게도 아이들이 수두에 걸렸다. 사라는 심하게 앓지는 앓았으나, 몹시 지치고 신경질을 부렸다. 저녁 식사를 끝낸 사라는 곧 소파에서 잠이 들었으나, 초인종 소리가 나자 잠이 덜

깨 채, 동생들과 함께 문으로 달려갔다. 사라는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보우웬 형제와 그의 동반자를 대하자, 훌쩍 거리며 방에서 뛰어나갔다. 그러자 아빠는 나와 두 아이들에게 어리둥절해하는 방문객들을 맞이하게 하고, 사라를 안정시키려고 애썼다.

“사라는 깊이 잠들어 있다가 형제님이 오실 때 깨어났어요!” 나는 당황해서 설명했다. “요즘 몸이 안좋은 편이에요. 사실, 평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가정 복음 교사들은 그날 밤 친절하고 너그럽게 이해해주었으나, 나는 이 방문을 너무도 고대했던 터라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다음 방문이 있기 전의 일요일까지 사라에게 그에 대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며, 그 일요일에 우리 가정 복음 교사가 개회 기도를 해주셨고 그가 다시 방문할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목요일이 되자 정각 7시에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에는 클라크와 레이첼이 현관으로 뛰어갔고, 사라는 부엌에 그대로 있었다.

“여보, 당신이 나가 보세요.”하고 나는 남편에게 속삭였다. “나는 사라를 달래 보겠어요…….”

“자, 사라야, 오늘 네가 유아반에서 만든 연을 보우웬 형제님과 패토 형제님께 보여 드리지 않으려면?” 나는 게시판에서 색색으로 된 삼각연을 사라에게 건네 주었다.

“싫어요.” 사라는 그것을 내려 놓으며 말했다. “난 그냥 여기 있을래요.”

“자, 같이 저쪽으로 가자. 너, 내 무릎에 앉을래?”

“싫어.”

“엄마하고 같이 가자.” 나는 지지 않

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태도로 사라를 들어올려 모두가 앉아 있는 거실로 들어갔다.

“사라야, 잘 있었니?” 보우웬 형제가 따뜻이 맞아 주며, 손을 내밀었다. 사라는 고개를 돌려 내 어깨에 파묻었다. “오늘은 특별히 너와 클라크에게 들려줄 공과가 있단다.” 보우웬 형제는 바닥에 앉아 유쾌한 듯이 이야기했다. “자, 내 옆에 앉아서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호기심이 생긴 사라는 보우웬 형제가 파일에서 꺼낸 건건하게 앉아 있는 아이들의 그림을 넘겨다 보았다. 나는 사라를 무릎에 앉힌 채 재빨리 바닥에 앉았다.

“여자 아이와 남자 아이예요.” 하고 클라크가 말했다.

“맞았다.” 보우웬 형제가 즐겁게 말했다. “어떻게 하고 있지?”

“머리를 들고 서 있어요.” 사라가 장난치듯 대답했다.

“팔을 모으고 있어요.” 클라크가 자기 팔을 모으며 대답했다.

“잘 아는데.” 보우웬 형제가 칭찬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조용할까? 누구 집에 있는거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집예요.” 사라가 대답했다. 나는 사라가 일부러 엉터리 답을 하는 통에 얼굴이 붉어졌다. 일부러 엉터리 답만 골라 하다니, 꼭 우리 초등학교 반의 남자 아이들 같다고 생각했다.

경건에 관한 공과와 가족 기도가 끝나자, 보우웬 형제는 주머니에서 예쁜 리본으로 짠 과자를 주었다. “자, 사라야, 이 과자는 너 즐려고 사 왔으니 동생들과 나눠 먹어라.”

나는 사라의 눈빛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하면서도 머리를 흔드는 것을 보았다. “클라크한테 주세요.” 사라는 자기가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무시라도 하듯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클라크가 손을 내밀면서 말했다.

“정말 똑똑하군요.” 보웬 형제가 내게 말했다.

“예, 모두 다 똑똑해요.” 나는 쫓기는 듯한 심정으로 대답했다.

가정 복음 교사들이 떠나자, 남편은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누어 주려고 부엌으로 데리고 갔다. 나는 눈물을 머금고 가정 복음 교사들이 떠난 문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하나님, 그가 사라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조용히 기도했다. “사라가 옳지 않은 행동을 했지만, 착하고 예쁜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참을성 있게 사라를 사랑해 주도록 도와 주십시오.”

갑자기, 처음 4주일 동안 것처럼 버릇없이 굴던 여섯 명의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나는 나의 청지기의 직분을 그 순간에 깨달은 것 같았다. “그 어머니들이 지난 9월에 얼마나 많이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을까?” 그 후로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대해 끝까지 참고, 창의적으로 가르치겠다는 결심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초등학교에서 이 임무가 자매님에게 새로운 차원에서 성장과 발전의 길을 열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까지 내가 받은 과제 중에서 가장 작지만 힘든 것이었다. *

나의 증조부는 100여 년 전에 스웨덴에서 교회에 개종해 들어와, 곧 미대륙까지의 먼 항해의 길에 올랐다. 그들은 뉴욕에 도착하여 오마하까지는 기차로, 솔트레이크시티까지는 마차에 의한 여행길에 올랐다. 그러나 증조부 가족들이 뉴욕에서 기차에 올라탔을 때, 그들은 시장에 내다 팔 돼지 수송차로 사용해 온 화물 차량에 타게 된 것을 알았으며, 그 차 안은 더러웠고 돼지 기생충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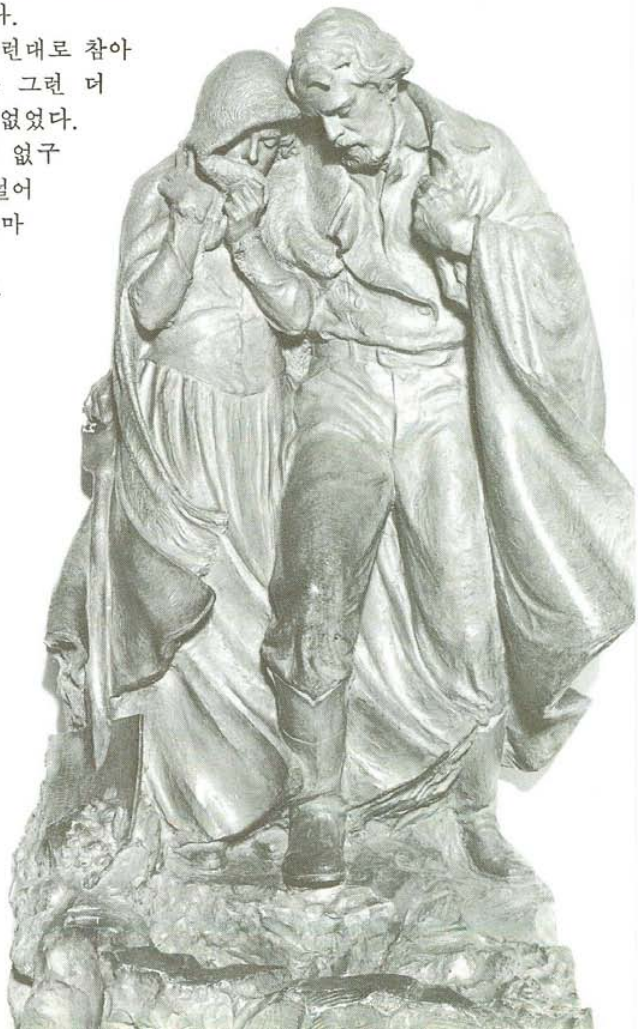
증조 할머니는 불편을 그런대로 참아 내셨으나, 증조 할아버지는 그런 더러움은 결코 참고 견딜 수 없었다. “우리가 돼지보다 나을 게 없구만.” 할아버지는 불평을 털어 놓으며, 그 여행을 겨우 끝마쳤다.

그들이 오마하에 도착하여 다시 서부로 향하는 긴 여행길에 올랐을 때, 할머니는 임신 중이었으므로,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건강과 아기의 안전을 염려하게 되었다. 마차 부대의 대장은 할아버지에게 경험이 많은 조산원도 함께 따라가니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네브라스카 평원에 다달았을 때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나 며칠 후에 세 살 난 아들이 콜레라에 걸렸다. 한밤중에 할아버지가 이웃

역경에 처했을 때 해야 할 일

스티브 던 헨슨



의 포장 마차로 가 촛불을 빌리려 했으나, 그들도 하나밖에 없었으므로, 나누어 줄 수 없노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할아버지는 기운이 빠져 축 처진 아들을 안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그 아들은 불행히도 그날 밤에 죽었다.

이튿날 아침에 마차 부대 대장은 그들은 위험한 인디언 구역에 들어 있으므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며, 간단히 장례식을 치르고, 땅을 얇게 파 매장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혼자 남아서 들짐승들이 파들어 가지 못하도록 무덤을 깊이 파다.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그리고 밤중까지 일을 하여, 튼튼한 판을 짜고, 단단한 땅을 1.5미터나 파 내려갔다. 결국, 완전히 지친 몸으로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묻은 뒤에, 할아버지는 마차 부대를 따라오기 위해 밤새도록 걸어왔다. 할아버지의 가슴은 상심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아들을 매장할 동안 기다려 주지 않은 마차 부대 대장을, 그리고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원망했다. 할아버지가 그의 마차에 닿아 아내에게 그런 감정을 표현하자, 아내는 부드러운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여보,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아기와 나는 건강하고, 나머지 식구들도 모두 건강하니 주님께 감사드려야지요. 우리가 더 이상 곤경을 겪지 않고 여행 목적지까지 가게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깊이 감사드려야 해요. 우리는 물론 교회가 유일한 참된 교회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교회

에 개종한 것이고, 나는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어요. 이 여행에서 슬픔과 곤경을 겪는 사람들은 우리뿐만이 아니잖아요.” (하켄 한슨의 역사에서)

이것이 그들에게 닥친 역경의 끝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일생 동안 극심한 역경과 곤경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같이 곤경을 겪으면서도, 각기 다른 영향을 받았다. 할아버지는 이 일로 말미암아 성질이 포악해졌다. 할아버지는 교회에도 나가지 않고 교회 지도자들의 결점만을 찾았다. 그는 비참한 지경에 스스로 얽혀 들어, 그리스도의 빛은 그의 생활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 할머니의 신앙은 더욱 강해졌으며, 새로운 역경이 닥칠 때마다 점점 더 강해졌다. 할머니는 동정심과 사랑으로 가득 찬 자비의 천사가 되었다. 할머니는 주위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다. 가족은 할머니를 중심으로 뭉쳐, 할머니를 지도자로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거듭 읽어 보고, 같은 시련에 대하여 할아버지가 보여 준 반응을 생각해 보며, 또 나 자신이 역경에 처하기도 했고, 역경에 따르는 사명을 좀더 잘 이해하기 위해 경전을 연구해 보았다. 처음에 나는, 약간 혼돈되었다. 경전에서 어떤 경우에는, 시련과 곤경이 죄의 형벌로 곧 불미스런 행동이나 어리석은 결정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경전 속에서 의로운 사람들도 불의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곤경과 역경에 처하게 된 수많은 예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 고통스런 결

과, 곧 역경을 초래하게 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기회를 주려고 곤경과 싸워 나가게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또한 우리가 겪는 역경은 단순히 해의 영광의 왕국에 거하지 않고 별의 영광의 세계, 곧 이 세상에서 생활함으로써 겪는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갖고, 세속적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를 쌓아 간다는 것은 곤경과 문제점과 좌절감이 따르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별의 영광의 세계, 곧 이 세상에 살되, 해의 영광의 사람과 같아져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그 본보기를 요셉 스미스의 큰 시련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 있다. “내 아들이야, 이 모든 일은 네게 경험이 되고 네게 유익이 되는 줄 알지어다.

“인자는 모든 자보다 낮게 몸을 낮추었나니, 너는 저보다 크뇨?”(교성 122:7-8)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고후 4:17)

이제, 증조 할머니와 같이, 나는 내가 왜 역경을 당해야 하는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 역경에 처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거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고, 그 결과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그리스도와 같아질 수 있는가에 더 큰 관심을 갖고자 한다. 그에 대하여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즉, 합리화시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극복할 것인가, 중도에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견딜 것인가, 무관심해질 것인가 아니면 동정심을 품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모두 내가 선택할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은 내가 구세주의 생활 방식에 얼마나 가까이 접근해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역경과 승영의 관계를 분명히 이해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필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구려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고후 4:8-9, 17)

때로는 우리의 역경이 “잠시”도 아니고 “경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때도 있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른다면, 그것을 넘어서려는 능력이나 소망이 커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곤경에 처할 때라도 우리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한발짝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



내치니기



초원의 뇌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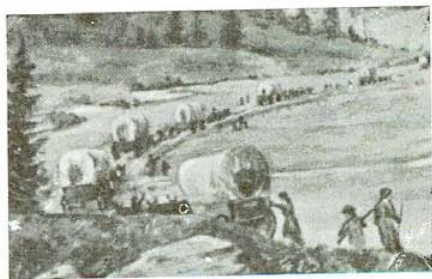
다이언 새더럽



제니는 덜덜 떨면서 누비 이불을 끌어당겨 온 몸을 꼭꼭 감쌌다. 그리고는 수잔에게 꼭 달라붙었다. 마차 밖에서 초원을 가로질러 맹렬하게 부는 바람 때문에 위에 쳐 놓은 흰 포장마차 덮개가 필력거렸다. 제니는 겁에 질려서 마차가 이 강한 폭풍우를 견딜 수 있을까 하고 걱정했다. 아빠는 대솔 트레이크 계곡을 향하여 긴 여행을 하는 동안 이 마차가 우리 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니는 그러나 바람으로 이 낡은 포장 마차가 부서지면, 수잔과 갓난 아기 사라, 엄마와 아빠와 나는 어떻게 계곡까지 가지 하고 생각했다.

포장 마차는 춥고 불편하기는 해도, 폭풍우를 막는 데는 안성맞춤이었고, 제니의 가족이 솔트레이크 계곡에서 새 보금자리를 꾸려 나가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실어 나르기에 충분할 정도로 컸다. 아빠가 쓸 여러 가지 연장 외에, 무거운 쇠스랑도 있었다. 엄마 역시 이것저것 물건을 챙겨 넣었다. 엄마가 아끼는 예쁜 접시는 포장마차가 덜경일 때 깨지지 않도록 흠이 불과 아마친 등으로 조심스럽게 몇 겹씩 싸 넣었다. 또한 가위와 실, 바늘 등을 챙겨 넣은 바느질 상자도 꾸렸다. 곡식과 씨앗 봉지와 함께 꽃씨도 조금씩 봉지에 넣어 두었다. 마당에 예쁜 꽃들이 활짝 피어 나면 그들의 새 집이 훨씬 돋보이게 될 것이다. 가구는 실을 곳이 없었으므로, 엄마가 아끼던 아름다운 조각이 달린 화장대는 아빠의 책장과 수잔의 침대와 함께 팔아 버렸다.

제니는 나부에 있던 그들의 아늑한 집을 회상했다.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었으나, 잔인한 사람



들이 강제로 내쫓았던 것이다. 아빠는 제니에게 그들이 항상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록키 산맥에서 새로운 집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다. 초원 저쪽에서 뇌성이 우르르 광광 거리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댔다. 제니는 베개에 머리를 파묻고 행복하고 편안한 날이 오기를 기원했다.

“퀴글리 자매님! 퀴글리 자매님!” 하고 부르는 울렌스래거 형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포장 마차의 휘장 사이로 그의 전지불이 보였다. “주무십니까? 지금 곧 짐 와 주셔야겠어요. 제 아내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습니다!” “예. 울렌스래거 형제님, 일어났어요. 곧 나가겠어요.”

제니는 썰렁하고 캄캄한 포장 마차 속에서 엄마가 급히 웃입는 소리를 들었다. 오늘 밤은 아빠가 가축을 지킬 차례였으므로, 함께 있지 않았다. 제니는 갑자기 이 크고 어두운 포장 마차 속에서 네 살 짜리 수잔과 갓난 아기 사라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 하고 그녀가 속삭였다.

“제니야, 엄마는 울렌스래거 자매님을 도와 주러 가야 해. 동생들이 깨면 잘 돌봐 주어야 한다.”

“예, 엄마.” 제니는 목이 뻗뻗해져 말

도 잘 나오지 않았다. 마음대로라면, “엄마 가지마, 나 무서워요!” 하며 울고 싶었다.

“제니야, 내가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네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침 일찍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아침 종이 일어난 시간을 알려 줄게다. 그리고 엄마는 포장 마차에서 나가 축축한 밤공기를 마시며 올렌스래거 자매님이 있는 곳으로 갔다.

방! 밤공기를 가르고 굉장한 뇌성이 울리자 수잔이 놀라서 잠을 깨었다. “엄마!” 하고 수잔이 울부짖었다.

“수잔, 엄마는 안게서.” 제니는 놀란 동생을 어루만져 주며 경위를 설명했다. “엄마는 올렌스래거 자매님이 아끼는 걸 도와 주러 가셨어.”

“엄마 빨리 와. 나 무서워.” 수잔은 울기 시작했다.

제니는 어린 동생을 꼭 껴안고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내가 있잖아. 천둥소리에 잠이 깨어야. 자, 이제 자거라.”

제니는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기라도 하듯, 떨고 있는 어린 동생을 꼭 껴안아 주었다. 그러자 생각지도 않게 눈물이 흘러내려 수잔의 갈색 머리 위로 떨어졌다. 제니는 아, 아빠가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아빠는 뇌성썩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제니는 아빠의 커다란 웃음 소리가 뇌성보다 크고, 힘센 팔뚝이 강한 바람보다 더 세다고 믿었다.

“쉬어……” 제니가 속삭였다. “조용히 해, 수잔.” 그러나 누비 이불 속에서 떨고 있는 어린 동생은 쉽게 진정하지 못했다. 수잔이 우는 바람에 갓난 아기 사라도 깨어나서 보채기 시작했다.

폭풍우는 점점 거세어졌고, 비가 줄기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번개가 번쩍이며, 여기저기서 천둥이 우르르 쿵쿵 소리쳤다. 제니도 무서움에 질려 버렸다. 제니도 더 이상 동생에게 말을 하거나 달래 줄 수 없었다. 엄마는 어린 동생을 돌봐 주라고 했지만, 자기 자신부터 무서움에 질려 버린 것이다. 아, 어떻게 하면 좋지? 그녀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때 제니는 나무에 있는 집을 떠나기 전에 아빠가 해준 말이 생각났다. 아빠는, 살아가자면 외롭고 무서울 때도 있으며 그런 때에는 혼자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엄마나 아빠가 가까이 있지 않더라도, 절대로 혼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때 아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어려울 때 그녀를 도와 주시려 한다고 설명했다. 하나님은 두려울 때 위안해 주시고, 외로울 때 가까이에서 즐겁게 해주시려고 한다. 그녀가 할 일은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제니는 두려움을 참고 일어나서 두 동생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런 다음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그녀와 수잔과 사라를 축복해 주시고 폭풍우 속에서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했다. 그녀는 기도를 마친 다음 이불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곧 수잔과 사라는 그녀 옆에서 다시 깊이 잠들었다. 제니는 두 동생의 옆에 누워서 마음속에서 무서움이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드는 것을 느꼈다. 천둥소리를 듣다가 지친 그녀 역시 평화롭게 잠들었다. *

아빠와 함께 사는 집

애그니스 캠프튼



그레타는 껍뻍대며 아침 식사를 기다리는 오리떼에게 모이를 한웅큼 던져 주었다. 그러나 자기가 하는 일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아빠가 조종하는 거룻배가 운하의 수로를 이처럼 느리게 지나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아버지가 몸을 돌리며 웃어 보였다. “그레타, 오랫동안 잘 참아 주는구나. 오래지 않아 사촌들을 다시 보게 될게다. 거진 다 왔다.”

딸은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늘이 애니의 생일이에요. 지난 9월에 있었던 한스의 생일 이후로는 방문하지 못했어요. 정말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갑자기 아빠의 얼굴에 좀 서글픈 기색이 보였다. “네가 네 또래 아이들과 좀더 자주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도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거룻배집 외에는 다른 곳에서 살기가

어렵구나.”

“괜찮아요.” 그레타가 대답했다. “농장에서 야채, 치즈 등을 받아 암스텔담에 있는 시장에 실어 나르는 일이 중요한 일임을 잘 알고 있어요. 게다가 거룻배집에서 생활하는 여자 아이들도 흔하지 않잖아요.”

그레타는 자신이 때때로 느끼는 외로움이나, 같은 나이 또래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지도 못한 채 지겹도록 긴 나날을 보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아빠에게 말해 걱정을 끼쳐 드리면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것에 대하여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저쪽 강기슭에서 루드빅 아저씨와 애니와 한스가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몇 분 뒤에 그레타는 웃음으로 맞아 주는 사촌들을 꼭 껴안으며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어!”하고 외쳤다.

“이렇게 좋은 생일 선물은 처음이야.” 하고 애니가 말했다. “정말 오래간만이야!”

한스 역시 자기 생일이라도 이보다 더 즐겁지는 못했을 것이다. “자, 집으로 가자.” 하고 그가 재촉했다. “네가 보면 깜짝 놀랄 게 있어, 그레타.”

루드빅 아저씨와 그레타의 아버지는 서로의 이야기에 너무 열중하여 세 아이들이 흠뻑 젖어 가는 길을 마구 달려가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별로 멀지 않은 산등성이에 커다란 노란 집이 있었다.

힐다 아주머니가 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밀가루 범벅이 된 손을 빨간 점박이 앞치마에 닦고는 그레타를 번쩍 들어 안아 주면서 “우리는 오랫동안 이 날이 오기를 고대해 왔다.”고 말



했다. “그레타, 너를 다시 만나서 정말 기쁘구나.”

그레타는 갑자기 목이 메어 거의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사촌들이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 계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 그들이 이렇게 크고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아주머니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계시는 중이었으므로, 조그마하고 둥근 팬케이크를 나누어 주었다. 그것은 아직도 따끈했으며 버터와 설탕이 듬뿍 발라져 있었다.

“자, 아빠와 이야기할게 있으니, 밖에 나가 놀아라.”하고 힐다 아주머니가 말했다.

“나한테 보여 주고 싶다면 잠깐 놀랄 만하게 어디 있어?” 하고 그레타가 물었다.

한스와 애니는 재빨리 그레타를 마당으로 이끌고 나왔다.

“저거야.”하고 한스가 말했다.

그레타는 색색의 튜립 꽃이 가득 피어 있는 조그마하고 예쁜 정원을 보았다.

“꽃은 내가 심고 한스 오빠는 자갈길을 만들고 연못에 돌을 깔았어!” 애니가 큰소리로 말했다. “또 오빠가 조그만 풍차도 만들었어!”

“정말 예쁘다!” 그레타가 감탄하며 말했다. “너희들은 함께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집안으로 돌아온 아이들은 부모들이 부엌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루드빅 아저씨가 목청을 가다듬었다. “그레타, 이번 겨울에 우리와 함께 지내면 어떻겠니? 사촌들과 함께 마을에

있는 학교에도 다니고, 아버지도 네가 이제는 많이 키졌으니 좀더 안정된 집을 마련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셔는데.”

그레타의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그레타, 나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다. 그렇지만 아주머니와 아저씨한테 폐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단다.”

“그레타 언니!” 애니가 소리쳤다. “정말 잘 됐어!”

“매일매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잖아.” 한스도 환하게 미소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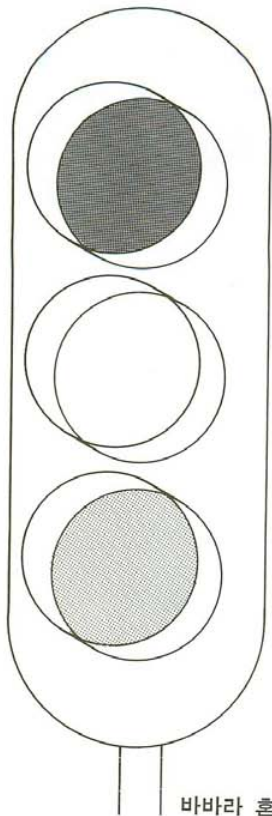
그레타도 마음속으로 즐거움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꿈이 실현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레타가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아버지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빠가 지금은 웃고 계시지만, 마음속으로는 몹시 슬퍼하시리라는 것을 알았다. 아빠는 내가 없으면 너무 쓸쓸하실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레타는 아버지 품에 안기며, 루드빅 아저씨에게 말했다. “아저씨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집 식구가 아니에요.” 그녀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아빠, 아빠와 나는 한 가족이에요. 나는 이대로 살고 싶어요.”

아버지는 놀란 듯하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말했다. “그러나 나는 네가 그러기를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레타, 나는 네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단다.”

“나는 행복해요.” 그레타가 대답했다. “루드빅 아저씨가 나를 이집 식구로 맞아 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하지만, 나는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요. 나는 행복해요. 아빠, 나는 아빠의 딸이 된 것이 정말 행복해요.” *
* * *



바바라 홀그렌

교통 도시



간선 도로에서는 운전할 수 없고 다만 어린이 교통 도시의 거리에서만 운전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전국의 간선 도로에서 시행되는 것과 똑같은 법규를 지킨다.

1958년에 창설된 아동 교통 도시는 축구장만한 크기의 운동장에 축소된 도로가 나 있다. 8자 모양으로 구성된 그곳에는 횡단로와 횡단 보도, 교통 신호등과 큰 교차로도 있다. 교통 순경이 보행자와 자전거와 소형차가 끊임없이 왕래하는 것을 정리하고 있다.

자동차는 유명 제조업체와 핀란드에서 교통 안전 문제를 취급하는 기관인 탈자에서 제공하였다. 헬싱키에서는 대지와 주차장을 기증하고 길을 닦았다.

이 아동 교통 도시는 하루에 700내지 800명의 아동을 수용할 수 있다. 학교 수업이 있는 9월에서 5월 사이에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수업이 진행된다. 하기 방학에 들어가면, 어린이들은 이곳에 와서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다. 강사는 주로 젊은 시 경찰관으로, 그 일에 대하여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 어린이들은 교통 법규에 관한 사항이나 문제에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어린이들은 한 번 올 때마다 45분간 운전할 수 있다. 어린이들은 교통 학교에서 운전한 시간이 합계 2시간이 되어야만 운전 면허를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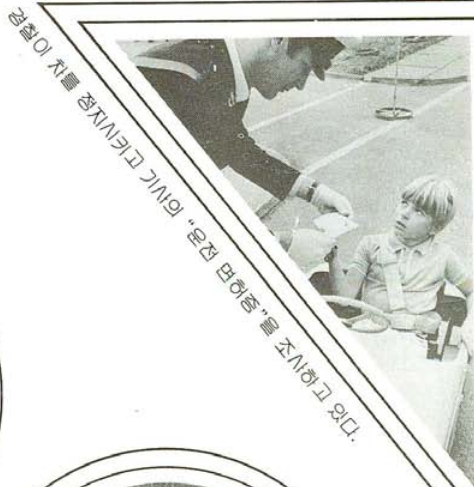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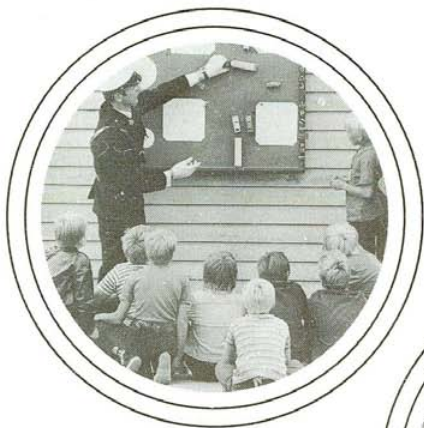
더 큰 어린이들은 경찰 보조가 되어 교통 도시에서 교통 정리를 도울 수 있다.

헬싱키 교통 학교는 큰 성공을 거두어 뒤이어 전국적으로 많은 학교가 설립되었고 다른 학교도 현재 계획 중에 있다.

*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는 유치원에서 13세까지의 어린이들이 “운전 면허”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물론

경찰이 교통 법규가 지켜지지 않을 때
차가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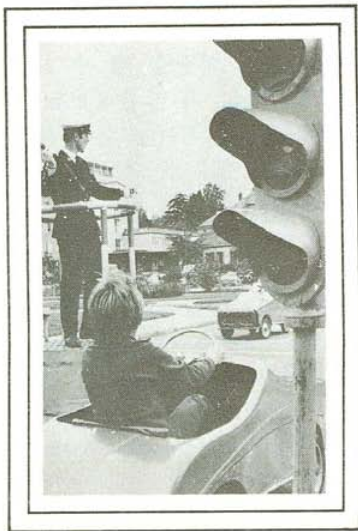


경찰이 차를 정지시키고 가사의 "안전 면허증"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차를
정지시키고 가사에게
보행자의 권리를
삼기시켜 주고 있다.

경찰이 적당한 손의 신호를 점검한다.



교통 신호를 보고 차를 세우는 어린이.
어린이.

사진 제공 : 핀란드 국립 관광 공사



복음을 함께 나누는 손쉬운 방법

디 브이 제이컵스





모든 밀일성도 학생들이
매년 한 번씩이라도
교회에 관한 리포트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선생님이나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모든 회원은 선교사이다

“물론 나도 선교사가 되고 싶지만 부끄럼을 잘 타요.”

“그건 힘든 일이에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에 수십 명의 친구와 친지들에게 교회나 복음 원리를 소개할 수 있었던 이 간단한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나?

캘리포니아주 월넷 크릭에 사는 카렌과 수잔 제이컵스는 이 방법이 재미있고 보람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카렌이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있는 미국인 학교 5학년에 재학하고 있을 때 시작되었다. 카렌은 미국사 성적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주제를 찾고 있었다. 선생님

은 주석, 저서 목록, 노트, 구두 발표 등 모든 것을 요구했다. 가장 큰 문제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었다. 부모님은 물문의 서부 이주에 관해 발표해 보라고 제안했다.

“괜찮겠는데요.”하고 카렌이 말했다. 일단 시작해 보니 이 주제야말로 부모님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초등학교와 주일학교에서 얻은 지식을 총 동원하여 다른 어떤 것보다도 훨씬 쓰기 쉬운 주제였다.

반에는 물문에 대하여 알고 있는 학생이 거의 없었으므로, 그 구두 발표는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그후 여러 달 동안 활발한 토론의 쟁점이 되었다. 그리고 점수도 최고점을 받았다.

이런 방법을 발견해 낸 제이컵스 자매들은 그 방법을 다양하게 여러 번 활용하였다. 예를 들면, 8학년생인 수잔은 과학 시간에 송아지 심장을 해부하면서 흡연의 결과에 대하여 발표하여 관심을 모았다. (수잔은 조지 워싱턴 대학의 의과 대학생인 밀로 앤드러스에 가서 심장 절개 방법과 신장의 움직임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고, 또한 의과용 장갑과 메스도 받았던 것이다.) 조그만 소녀가 그와 같이 사실적으로 잘 발표하자, 급우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동시에 지혜의 말씀에 대한 훌륭한 강의의 받음 셈이었다. 점수는 역시 최고점이었다.

심장에 관한 발표가 좋은 반응을 얻었으므로 카렌은 과학 시간에 송아지의 뇌를 해부하여 마취제의 결과에 대한 훌륭한 발표로 상을 받았다. 다시 한번, 그녀는 건강에 대한 주님의 율법을 쉽게 전달하고 쉽게 이해시켜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을 썼던 것이다.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워싱턴 리
고등학교 2학년생이 된 카렌은 역사책
이 예언자 요셉과 교회의 권위를 손상
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분개하였다. 거기에는 요셉 스미
스가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보물을
캐내는 농부로 그려져 있었다. 그 부당
성을 지적하자 선생님은 카렌에게 교회
의 초기 역사에 대하여 반에서 발표하
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카렌은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카렌은 5학년 때 작성한
리포트를 꺼냈다. 그 리포트에 요셉 스
미스의 이야기와 그 외에 몇 가지 사항
을 덧붙이자 준비가 다 되었다. 그것을
발표하는 데 그 수업 시간이 다 소모되
었다. 선생님은 카렌에게 오후 시간에도
그 리포트를 다시 발표하라고 했다.
의미있는 질문이 수없이 쏟아져 나와
결국 선교사들을 초대하여 더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되었다.

800명이나 되는 졸업반 학생 중에서
말일성도 학생은 3명뿐이었으나, 카렌이
속한 상급 행정반에서는 교회를 주제로
하여 네 번씩이나 구두 발표를 듣는 특
권을 갖게 되었다. 카렌은 협동 교단에
대하여, 마이크 밀러는 지혜의 말씀의
영양학적인 면에 대하여, 마크 포사이
스는 교회 행정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워싱턴 신전이 헌납되기 전에 신전을
방문하고 큰 감명을 받았던 비회원이
말일성도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신전을
짓는 사람들로써의 물문에 대하여 발표
하였으므로 상당한 보너스를 받은 셈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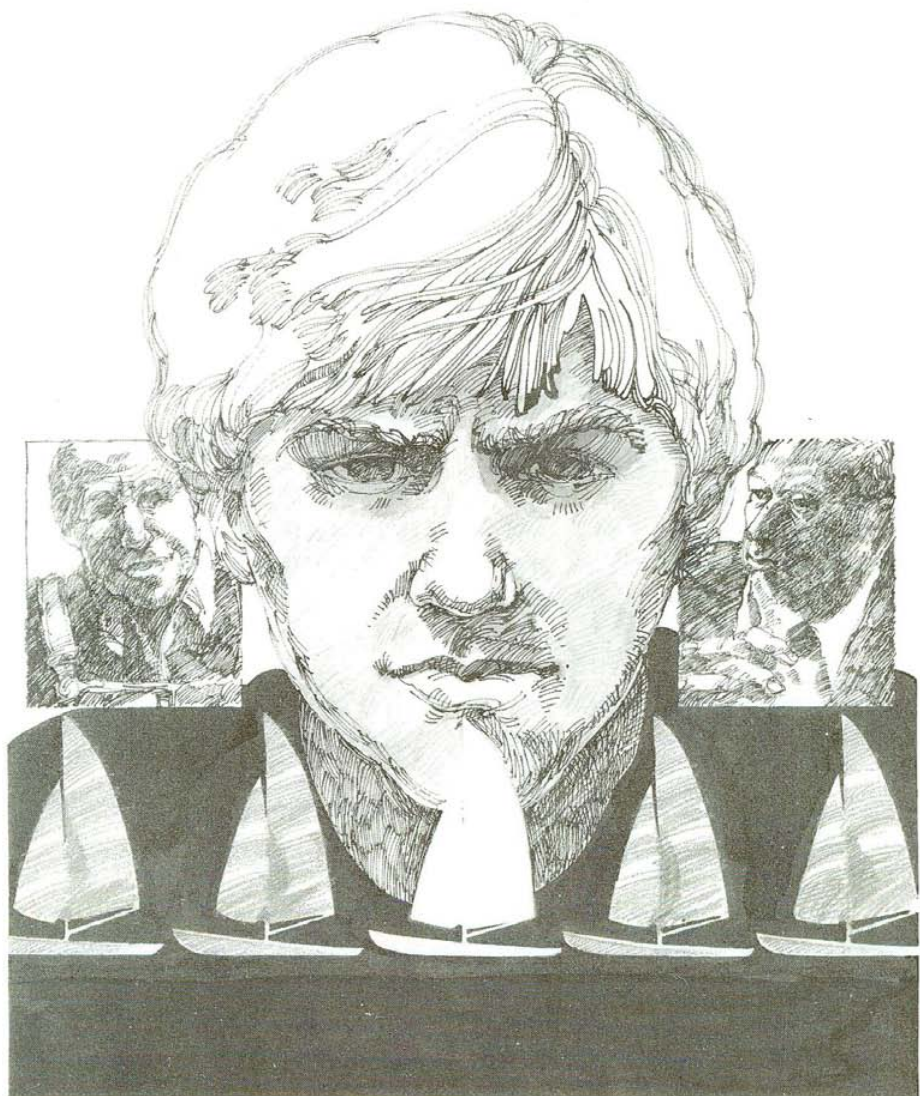
카렌과 수잔과 그 밖의 친구들이 기
꺼이 이러한 방법을 시도함으로써 상당
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사실상

그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그들이 물문
인 줄 알게 되었다. 워싱턴 디시의 교외
에 위치해 있는 이 학교의 학생은 대부
분 외교관, 국회의원, 군 장성 및 정부
고관의 자녀들이었다. 그런데도 그중
에는 마약 복용자도 상당히 많았고, 말씨
도 거칠고, 부도덕하며, 복장도 아무렇
게나 걸치고 다니고, 확고한 표준이나
이상이 없는 학생들이 대다수였다. 그
러나 소수의 말일성도 그룹은 비슷한
신조를 갖고 있는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았으며 그들을 조롱하
고 곤란하게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
었다. 사실, 부당한 행위를 피해야 할
경우에도 “물문은 그런건 안하는거야.”
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카렌이 브리감 영 대학에 다니다가
학업을 중지하고 스페인으로 선교 사업
을 떠나게 된 것이라든지, 수잔도 몇 달
만 지나면 선교사 부름을 받게 된 것은
어려서부터 복음의 주제를 파고 들고
말일성도의 가르침을 기꺼이 나누고자
했던 데에 일부 원인이 있었던 것 같다.

주님의 위대한 예언자는 모든 회원에
게 선교사가 되라고 했다. 모든 말일성
도 학생들이 매년 한 번씩이라도 교회
에 관한 리포트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선생님이나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을까? 교회 회원들이 많
이 거주하는 지역에서조차, 많은 비회
원들이 우리의 가르침을 사실 그대로 들
어본 적이 한번도 없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하면 좀더 쉬운 방법으로 걸음의
폭을 넓혀 킴블 대관장님과 함께 기뻐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보자! 사랑
하는 예언자의 사무실에 걸려 있는 “실
천하자!”라는 모토를 인용해 보자. *

감독님과 아버지와 보트



“감독님, 사실은 그리 크게 문제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난달에 말씀하신 선교 사업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 보았을지만,
역시 나는 선교사로 나갈 수 없습니다.”

데이비드 햄몬드

나는 목재 의자의 좁은 팔걸이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다가,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연푸른색 벽 위에 걸린 대관장단의 사진을 올려다 보았다. 나는 속으로 진정해야지 라고 생각했다. 결국, 이번 방문은 내가 요청했던 것이다. 감독님이 서기실을 나오면서 말씀하는 음성이 홀을 지나 점점 크게 들리더니 곧 그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미소지으며 말했다. “제프, 잘 있었나?”

“예, 안녕하셨어요?” 나는 마음속으로는 내가 여기서 도대체 뭘 하는거지? 하고 당황해 하면서도 태연한 척 큰소리로 말했다.

스미스 감독은 튼튼하게 생긴 무게 있는 검은 책상 뒤에서 육중한 의자를 끌어내어, 내 옆에 앉으며 다시 미소지었다. 스미스 감독은 체구가 크고 원만한 인품을 지닌 분으로, 그가 미소를 지을 때는 환한 얼굴과 함께 전신이 빛나는 듯했다. 나는 잠시 그 마스한 인품에 빠져 드는 듯했으나, 곧 말문을 열었다. “감독님, 사실은 그리 크게 문제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난달에 말씀하신 선교 사업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 보았을지만, 역시 나는 선교사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갈 수 없다는 말이지!”

“예, 저는 스물 두 살입니다. 돌아오면 스물 네 살이 되는데, 너무 나이가 많게 됩니다.”

“무얼하기에 너무 나이가 많다는 것이지?”

“아, 감독님, 저는 주립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 사람의 식물학자입니다. 내가 고틀립 교수님의 고급 식물 병리학 학점을 걱정하고 있을 때 고등학교 2학년생이었던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겠습니까? 감독님이 소맥균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어떤 것이라도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스미스 감독은 잠시 나를 쳐다보다가, 앞으로 몸을 내밀며, 다정한 태도로 물었다. “그것이 진짜 이유인가?”

그런 질문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았었다. 나는 그가 유쾌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곧 동의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예, 대개 그렇습니다.” 나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근본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제프, 자네와 나는 어느 정도 심각한 이야기를 했었지. 그런 기본적인 이유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을텐데, 말해주겠나?” 스미스 감독이 몸을 뒤로 젖히자 의자가 삐걱거렸다.

나는 손을 내밀어 바지에 붙어 있는 실보푸라기를 떼어 냈다. “아, 그것은 감독님, 나는 여태까지 가장 훌륭한 결정을 내려 보지 못했습니다. 7년 동안 비활동적이었던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구도자들에게 ‘나는 주일학교를 사랑하며 컸습니다.’라든가 ‘나는 늘 지혜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믿어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목포니 충실함이니 간증에 대한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개종자들도 간증이니 목포니 충실성에 대하여 말할 수 있네. 그들이 늘 활동적인 회원이었던 것은 아니네.”

“그러나 그들은 떨어져 나가지 않고, 가입할 것을 택했죠.”

“자네는 돌아올 것을 택했네.”

나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홀에서 떠드는 소리만이 귀에 들렸다. 조금 후에 감독이 다정하게 말했다. “난 아무래도 잘 모르겠네. 자네는 자격이 의심스럽다는 것인가?”

나는 딱딱한 어조로 말했다. “감독

님,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식이나 연차 대회나 기타 집회에 참석해 보면, 주님은 가장 훌륭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만이 주님의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제프, 조금 알겠네.” 스미스 감독은 말을 마치고 손가락을 탁 튀겼다. “이 문제에 대하여 부친께 말씀드려 보았나?”

“조금은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별로 깊이 말씀드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감독님을 찾아뵙겠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제프, 부친께 말씀드려 보게나. 나는 자네 부친을 잘 알고 있네. 좋은 분이시지. 부친께 말씀드리고 난 뒤에 다시 나와 말해 보세. 어땠는가?”

감독과의 접견은 생각했던 대로 잘 되지 않았다. 갑자기 어찌 해야 할지 생각이 막혔다. “예.”라고 대답하고 우리는 일어섰다. 스미스 감독은 문가로 걸어 나와, 악수를 한 뒤 내 어깨를 꼭 껴안아 주었다.

그는 “다시 나와 이야기하기로 한 것 명심하게.”라고 말했다. 나는 그 건물에서 나오면서 친구들이나 찾아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또 대학 캠퍼스를 찾아가 그린하우스 사이를 산책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했다. 나는 이미 졸업을 했지만, 해바라기 꽃에 관한 연구를 하는 고틀립 교수를 도와 드리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나는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기로 결심했다.

나의 부모님은 아주 이해심이 많으시

나의 부모님은

아주 이해심이 많으시다.

우리는 늘 함께 이야기를 잘 해왔다.

내가 신권회에 나가지 않고,

그 다음에는 주일학교 그리고

교회에 통 나가지 않았을 때에도

부모님은 한 번도 위협하거나

소리지르는 일이 없었다.

다. 우리는 늘 함께 이야기를 잘 해왔다. 내가 신학교에 나가지 않고, 그 다음에는 주일학교 그리고 교회에 통 나가지 않았을 때에도, 부모님은 한 번도 위협하거나 소리지르는 일이 없었다.

부모님이 내심으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으리라는 것은 알았지만, 변함없이 사랑해 주심을 잘 알았다. 사실상 나는 부모님을 무시한 적은 한번도 없었으나, 친구들과 또 학교 일로 상당히 바쁘게 지낸 편이었다. 사실, 나는 두 명의 훌륭한 가정 북음 교사 때문에 교회에 다시 나가게 되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부모님에게 별로 말씀드리지 않았다. 내가 신학 연구원에서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나를 데리고 교회에 참석해 달라고 했을 때, 부친이 “너 정말이나?” 라고 말씀하신 것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집에 도착해서 불이 꺼져 있고 차가 없는 것을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그러나 뒤뜰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알고는, 차에서 내려 그쪽으로 걸어갔다. 뒤뜰에 가서 부친이 오래된 조그만 보트를 수리 하는 데 몰두해 있는 것을 알았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는 북쪽에 있는 로레인 호수로 보트를 타러 가곤 했다. 사실 그 보트는 그리 좋지 못했다. 한 번에 한 사람씩만 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트를 타는 시간보다 호수에 빠지는 시간이 더 많으면서도, 두 사람이 같이 타기를 즐겼다.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모두 제 일에 바빠지자, 보트를 타러 가지 못했다. 그러다가 차고 한쪽에 세워 놓은 보트를 막내 동생이 차로 긁어 놓았다. 그후 우리는 그 보트를 집 뒤에 있는 수채화 캔버스 밑에 처박아 두었다. 이제 아이들이 다 떠나자 보트에 대한 부

친의 관심이 다시 커졌던 것이다. 부친은 지난해말에 보트 수리를 시작하였다. 나는 몇 주일 전에, 흰 페인트 칠을 하는 부친을 도와 드렸다.

“보트야 잘 있었니?” 나는 집을 돌아가면서 말했다.

“너 참 잘 왔다. 도와 줄 사람이 필요했던 참이다.”

“잘 되었군요. 이 근처에 왔다가 들리고 싶었어요. 엄마는 어디 계세요?”

“이웃집에 간 모양이다. 스미스 감독님을 뵙고 오는 길이나?”

“잘 아시면서 그러시네요.”

“미안하다. 오늘 저녁에 네 문제를 죽 생각하고 있었다. 자, 여기를 사포로 좀 닦아라.” 아버지는 부드러운 노란색 사포를 주었다. 우리는 함께 일을 시작했다.

“저.”하고 내가 말 머리를 꺼냈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고 싶으시죠?”

“잘 알면서 그러는구나.”

나는 힘없이 웃었다. “죄송합니다.”

“너무 나이가 들어서 안되겠다고 말

“제프, 왜 주님께 물어보지 않지?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을텐데.”

“주님께서 대답해 주실까요?”

“주님께서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씀드렸지?”

“예.”

“순순히 수긍하시던?”

나는 힐끗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웃음을 띠고 제쳤다. “아닙니다. 감독님은 그렇게 쉽게 수긍하지 않으셔요. 아버지도 역시 그러실걸요.”

“나는 그렇지 않다. 그래, 어쩔 셈이지?” 나는 뒤쪽의 계단으로 걸어가서 앉았다. “글쎄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것은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냐 하는 것이다. 제프, 그것은 네 문제다. 너와 주님의 문제야. 네 앞 일, 선교사로 나가는 문제에 관해서 주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지?”

그 말씀은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풀을 뜯으며 손장난을 했다. “아니오.” 나는 그 밤이 너무도 조용한 것에 놀라면서 조용히 말했다.

“왜 그런지 말할 수 있겠니?”

“주께서 응답해 주시거나 나를 필요로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전에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거든요.”

아버지는 다시 사포로 닦기 시작했고, 나는 금성이 밝게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보트가 참 멋있지?”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화제가 바뀌어 잘 됐다고 생각했다. “정말 참 멋진데요.”

“너와 함께 이 보트를 타고 싶구나.”

“아버지가 시간을 내 보여요.”

“저 보트로만 물에 빠져 버리고 말겠지.”

“아니예요. 정말 잘 들걸요.” 하고 나는 웃었다.

“전에도 잘 뒤집혔잖니.”

“그렇지만 이걸 보세요. 아주 훌륭하

잖아요. 이처럼 훌륭한 보트를 타지 못한다면 후회할 거예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 아버지가 말씀하시려는 뜻을 알겠어요.”

“만일 우리가 실수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없다면 참 형편없이 될 게다. 우리는 좀더 나아질 기회를 가질 수 없겠지.”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제프, 왜 주님께 물어보지 않지?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을텐데.”

“주님께서 대답해 주실까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고맙습니다.” 나는 사포를 들고 있는 아버지의 손을 보면서 말했다. “해보겠어요.”

“제프야, 기도하기 전에 금식하고 싶다면 엄마와 내가 기꺼이 함께 금식해 주마.”

우리는 사포로 조금 더 닦았으며, 나는 고틀립 교수와 함께 하고 있는 일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다. 엄마가 집에 오시자, 함께 금식하는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부도님은 나를 적극 지지해 주었으며, 우리는 함께 금식하기로 뜻을 모았다. 나는 아파트로 차를 타고 오면서 소나무 수림의 싱그러운 냄새와 사과나무 꽃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금식하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생각났다. 먼저 마음이 정리되는 대로, 스미스 감독님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빨리 그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절대로 어떤 구실을 늘어놓으려 감독님의 사무실을 찾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

젊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나에게 가장 큰 힘과 영감을 주는 경험의 하나입니다. 그 젊은이들은 곧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찾아서 자기가 지향해

나가는 인품에 맞는 결정을 내리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자녀가 되기 위해 사회적인 압박을 이겨 내는 용기를 보여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젊은

여러분은 어려운 환경에 잘 대처하여
능히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언덕 위의 횃불”

빅터 엘 브라운 감독
관리 감독단



이들을 대하면 나의 간증이 강화되고 미래에 대한 확신과 신앙이 커집니다.

한 번은 스코틀랜드에 기지를 둔 원자잠수함의 수병들과 함께 생활하던 젊은 수병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는 많은 수병들 중에서 유일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었습니다. 잠수함은 여러 주일씩 걸리는 장기간 여행에 들어가곤 합니다. 이 젊은 교회 회원은 첫번 순항길에 올라 자기 부서에 배정되었을 때, 다른 수병들이 자기 부서에까지 반나체의 여자 사진을 잔뜩 붙여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몹시 감정이 상해서 그 사진을 모두 떼어내 찢어 버렸습니다. 그는 다른 수병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리라는 것을 짐작했지만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실천할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후로 다시는 그런 사진이 한 장도 더 붙지 않았습니다. 사실, 첫 순항길에서, 그는 2,3명씩 참석하는 주일학교반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는 대개의 사람들은 자신의 소신에 용기를 갖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두려움없이 실천하는 사람을 존경한다는 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14세의 뛰어난 테니스 선수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는 여러 주가 포함된 지역에서 자신이 속한 급의 모든 테니스 시합을 석권했습니다. 그는 먼 도시에서 벌어지게 되었던 아주 중요한 시합의 준결승전까지 진출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 보니, 그가 일요일날 시합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임원들에게 가서 일요일에는 테니스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시합에서 경기를

하려면, 일요일에 시합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일요일에 시합에 임하지 않으면 기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일요일에는 경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분명히 밝혔습니다. 마침내 일요일에 비가 와서 시합은 연기되었으며, 그는 월요일에 출전하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결승전 출전 선수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다른 큰 도시로 가서 전 대서양 연안 지역을 포함하여 미국의 최우수 선수 선발 시합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코치는 선수들이 도착하자마자 테니스 코트에 나와서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테니스 코트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코치가 왜 연습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나는 물론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그 시합에서 우승하고 싶었지만 스스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테니스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확실히 알고, 자신이 가르침받은 원리대로 생활해 나가려는 용기와 성실성을 지녔으며, 사회적인 압력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로, 어느 월계반 회장은 지도자들과까지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소녀를 활동화시킬 책임을 완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감독은 그 소녀의 집안에 몇 가지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이유도 있어, 다시 교회에 돌아올 가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원들도 이 소녀를 도와서 다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회장의 목표라는 것을 알고는 웃어 넘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소녀와 친하게 지내고 또 한 친구에게도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먼저 인사를 하고 잠시 걸음을 멈추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여러 가지 구실을 찾아 그녀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배슬링 팀의 후원회의 일원으로 뽑혔습니다.

월계반 회장은 그녀에게 꽃 한송이와 함께 축하 카드를 보냈습니다. 그러한 일이 서너 달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그 소녀는 어느 일요일에 주일학교에 오라는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다음 주일에도 또 왔으며, 그 주일의 뮤추얼에도 참석했습니다. 어린 월계반 소녀의 신앙과 용기로 같은 또래의 한 소녀가 교회에서 활동화되는 첫 단계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사는 한 젊은 여성의 생활에서도 지혜와 용기와 신앙의 본보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전문 분야에서 뛰어나게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결혼 적령기를 조금 넘어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결혼한다면, 꼭 신전에서 결혼하겠다는 결심을 굳혀 왔습니다. 그녀가 사는 지역에서는 교회 회원 중에 독신 총각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거의 결혼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

느 날 그녀는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교회 회원은 아니었지만, 그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젊은이가 결혼을 신청할 때 신전에서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선교사와 공부하기로 하고 결국 개종하여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일년 동안 기다려 신전 결혼을 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결혼식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것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신부는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영원한 축복을 받기 여러 해 전에 결심을 굳혀, 지금에 와서는 거의 불가능한 장애물로 생각된 것을 극복하고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목표를 달성하여 훌륭한 느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는 가치관의 대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목표와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진실로 자신의 본질을 깨달은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길을 예로 들어본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덕 위의 햇불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모든 젊은 말일성도들이 연구하고 기도하여 구세주와의 참된 관계에 대한 간증과 복음의 간증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의 젊은이들은 이 세상에서 더욱 강하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내적인 평안, 곧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빌 4:7)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

그들은 일년 동안 기다려
신전 결혼을 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마이클 시 툼맨 장로는 고향의 들과 산등성이에 파란 풀이 돋아나고 꽃망울이 움트는 봄에, 아이다호주 셀먼에 있는 조그마하고 평화로운 묘지에 안장되었다. 그의 무덤 앞에 놓인 묘비에는 그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간단히 새겨져 있었다. 1957년 5월 25일 출생, 1979년 5월 1일 사망. 마이클 툼맨은 농촌 출신의 소년이었다. 그는 아이다호 중남부에 있는 목장에서 여섯

자녀 중의 셋째로 자랐다.

마이클 툼맨은 선교사였고,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의 한 동반자는 툼맨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이클을 “해의 왕국의 선교사”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좋은 명칭을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뜻은 그가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다. 참으로 적절한 칭호였다.

툼맨 장로는 1976년 6월에 미국의 버

해의 왕국의 선교사

존 자비스



지니아 로아노크 선교부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했다. 조셉 맥파이 선교부장 부처는 그가 도착한 첫날부터 그가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느꼈다. 그들은 그에게서 “우리와 그의 모든 동료 선교사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경건과 겸손과 사랑”이 풍겨 나오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틀맨 장로의 임기가 끝날 무렵, 그 선교부를 관할하게 된 프랭크 모스콘 선교부장은 그가 훌륭한 선교사로서 흠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며, 선교부장은 마이클 틀맨이 옳은 일을 할 선교사라는 것을 첫눈에 알 수 있었다. 1977년 8월에 모스콘 선교부장은 그를 지구(Zone) 책임자로 불렀다. 틀맨 장로가 아주 훌륭하게 이 일을 해내었으므로 몇 달 후에 선교부장은 그를 자기 개인 보조로 불러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부름이 실현되기 전에, 마이클 틀맨 장로의 참된 인품이 드러나는 시련이 시작되었다.

1978년 1월 30일에, 모스콘 선교부장은 틀맨 장로가 일하는 도시에서 걸려온 비상 전화를 받았다. 틀맨 장로가 가슴과 위에 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쓰러졌다는 것이었다. 한쪽 허파에 액체가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을 빼내야 했던 것이다. 모스콘 선교부장은 허락을 했으며, 허파에서 2리터가 넘는 물을 빼냈다. 틀맨 장로는 정밀 진단을 받기 위해 로아노크로 공수되었다. 선교부장은 그가 쓰러지기 전에 두 달 동안 심한 통증으로 고통받아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세 번 진찰을 받았다. 그때마다 진단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그는 세 번 진찰받은 뒤로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그 의사가 선교사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던 것이다. 틀맨 장로는 무료

진료에서 자신의 몫으로 비용을 너무 많이 썼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후에 부모에게 “나는 이 병이 낫는지 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는지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라고 말했다.

로아노크에서 받은 진찰 결과는 암담했다. 암이라는 것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셸몬 아이다호 스테이크, 셸몬 제2와드에 있는 부모 제임스 렉스 틀맨 형제 자매는 즉시 비행기를 타고 동부로 왔다. 수술을 하여 틀맨 장로의 허파에서 커다란 혹을 빼어냈으며, 다른 혹도 두 개나 더 잘라냈다. 모든 선교사들이 그의 회복을 위해 금식했고, 그의 출신 와드 회원들은 계속해서 틀맨 가족을 위로했다. 버지니아주 전역과 미국 전역에서 카드와 서한이 날라 들었다. 그러나 틀맨 장로는 오직 “이렇게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하거나 않을까?”하는 한 가지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의사들이 그를 솔트레이크시티로 보내 방사선 치료를 받게 하자고 제의했을 때, 그는 “치료를 받으면서 선교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이곳 버지니아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다. 모스콘 선교부장은 은밀히 의사들과 만나 틀맨 장로가 다시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의사들은 전연 희망이 없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틀맨 장로의 병은 치명적인 것이었다.

틀맨 장로와 그의 가족이 로아노크 선교부를 떠날 때, 그의 부친은 모스콘 선교부장에게 “만일 마이클이 돌아오지 않으면, 마이클의 자전거를 자전거가 없는 다른 장로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 아들은 부드러우면서도 확고한 말로 부친의 말을 정정하였다. “아

버지, 왜 만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돌아오면, 그 문제를 함께 결정하지요.”

틀맨 장로는 그러한 감정으로 버지니아 로아노크 선교부를 떠났다. 그러나 솔트레이크시티로 가는 비행기를 탔을 때, 그의 가방 안에는 선교부내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의 명단과 주소 및 선교사용품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후 3개월 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모스콘 선교부장의 특별 보조로 일한 틀맨 장로는 선교부로 오는 편지 홍수에 휩싸였다. 이미 그는 전 선교부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선교사들은 그가 그들 자신의 문제를 들어주는 데서 큰 힘을 받았다. 모스콘 선교부장은 선교사 대회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 틀맨 장로에게서 편지를 받았으며 그것이 그들의 선교 사업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다. 그의 모범을 따른 선교사들이 많았으며 어떤 선교사는 다리에 부상을 당해 보통같이 큰 크게 낙담했을 터이지만, “틀맨 장로가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한순간도 선교 사업을 지체하지 않았다. 선교부의 성장은 새로운 고지에 도달하였다. 한 달에 128명의 침례 기록이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해의 왕국의 선교사”가 버지니아 로아노크 선교부의 선교사들에게 베푼 최상의 봉사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했다.

틀맨 장로가 버지니아의 선교부에서 잠시 떠난 날로부터 3개월 뒤인, 1978년 4월 27일에, 선교 본부로 돌아온 모스콘 선교부장은 메시지를 받았다. 즉 틀맨 장로가 몇 시간 후에 비행장에 도착할 것이니, 차를 가지고 나와 달라

는 것이었다. 그는 약속을 지켰다. 그가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조금 후에 솔트레이크시티 교회 본부의 선교사 위원회에 해명을 요구했다. 틀맨 장로는 치료받은 후 암이 더 진전하지 않는지 알아보기 위해 4주간의 휴가를 받았던 것이다. 그는 직접 선교사 위원회에 나가, 자신이 사랑하던 사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것이다. 그들은 “우리는 도저히 만류할 수 없었습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틀맨 장로는 로아노크에 도착하여 입이 찢어질 정도로 큰 웃음을 지으며 모스콘 선교부장과 인사를 나누었다.

“선교부장님, 저는 어디로 갈까요?” 그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것뿐이었다. 대답은 어디든지 가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선교사들과 함께 일하고, 선교사 대회, 스테이크 및 와드 모임, 노년의 모임 등에서 말씀했다. 유타주 바운티플 출신으로 같이 선교부장 보조로 일하던 조셉 드레이퍼 장로는 그가 그렇게 힘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다. “그는 나뿐만 아니라 그가 전하는 메시지와 간증에 귀를 기울인 모든 사람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그는 시련을 통해 놀랄 만한 힘을 얻었습니다.” 그 당시 그와 함께 일한 캘리포니아주의 비에호 선교부 출신인 벨 체드윅 배클리 장로는 일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도하며 다닌다. 그는 그 일을 좋아한다. 그는 바쁘게 지내기를 좋아한다. 그를 보고 화를 낼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나는 그와 함께 복음 전도하는 것이 즐겁다.”

캘리포니아의 엘 센트로의 고든 존슨

장로는 침례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틀맨 장로가 오기 전에 우리는 5개월 동안 일부만 회원인 가족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와서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도왔을 때 나머지 가족들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 네명의 어린 식구가 있는 가족도 가르침을 받고 침례받았다. 존슨 장로는 마이클 틀맨을 이렇게 말한다. “그는 주님과 사람들을 무척 사랑하여 그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내주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해 가며 봉사했습니다.”

틀맨 장로가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다니며 일하는 동안, 그가 보여 준 모범에 감사하는 편지가 끊임없이 모스크론 선교부장에게 날라 들었다. 버지니아주 노포크에서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어떤 부인은 것처럼 훌륭한 젊은이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 주기 위해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려 한다면 그의 메시지는 깊이 알아볼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녀는 후에 침례를 받았다.

이 마지막 몇 주일이 틀맨 장로에게는 영광스러운 기간이었으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전에 치료받은 상처와 암의 잔재가 남아 있어 끊임없이 고통을 받았다. 간혹 차를 타고 선교부들 여행할 때 모스크론 선교부장은 틀맨 장로가 극심한 고통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을 역력히 알 수 있었다. 그럴 때면 선교부장은 즉시 차 안에 있는 다른 장로들에게 점심 시간이니 쉬자고 말하여, 한참 동안 쉬게 했다. 후에 배글리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어떻게 견디어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나와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을 해도 기

찮아 하지 않았어요.” 마이클 틀맨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을 위하여 완전하게 성공적으로 자기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었다. 그는 고통을 받는다 해서 조금도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틀맨 장로는 자기에게 할당된 4주일이 끝나자 2주일간 더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주간의 보충 기간이 끝나자, 그는 모스크론 선교부장에게 조용하면서도 간절한 소망을 담은 어조로 말했다. “선교부장님, 제 임기를 더 연장시켜 주실 수 없습니까? 나는 석달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나는 주님께 2년을 약속했는데, 실제로는 21개월밖에 일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충하고 싶습니다.” 모스크론 선교부장은 그와 장시간 이야기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를 기쁘게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가까스로 납득시켰다.

1978년 6월 12일은 모스크론 선교부장 부처와 버지니아 로아노크 선교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섭섭한 날이었다. 틀맨 장로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와 함께 비행기에 올랐으며 자신의 생명을 건 2년간의 선교 사업에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

그후 일년도 채 못되어, 암이 마이클 틀맨에 관한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 종지부를 찍었다.

아이다호주 셸몬에 있는 그의 묘비에는 그의 인생의 작은 단편만이 새겨져 있다.

완전한 이야기는 그를 알았던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새겨진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들에게는 마이클 틀맨 장로가 분명히 “해의 왕국의 선교사”로 남아 있다. *

